사찰서 보는 궁중기록화의 정수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 특별전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의례~ '展
기획 전시실 7월 15일~8월 31일

'뎡니 의궤(프랑스)' 중 화성 성역도
모사본으로 국내서 처음 실견 기회
황치석작가의 창작품 포함 30여점



원행정리의궤도 중 낙남헌 양로연도 65X43cm, 본경 2018.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강원도 진부 월정사 입구에 위치한 왕조실록의궤박물관(관장 해운)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전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의례-붓 끝으로 펼쳐낸 조선왕실의 기록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의 반차도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재현하고 재해석해낸 황치석 작가의 작품을 통해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중에게 생동감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오랜 동안 의궤 반차도 재현 작업에 매진해온 황 작가의 창작품을 비롯해 총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대표작품 '뎡니의궤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중 화성성역도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한국에서 진본을 실견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이다. 이번 전시에서 황 작가의 모사본으로 만날 수 있다. 1795년(정조 19) 윤 2월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한 장면이 그려진 화첩식 의궤도인 한글로 표기된 30m의 원행정리의궤 반차도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문효세자 책례도감의궤 반차도'는 프랑스로부터 반환한 외규장각의궤로 1784년(정조 8) 7월에 정조의 맏아들 순(晙, 1782~1786)을 왕세자로 책봉한 책례를 기록한 의궤이다. 반차도에는 왕세자의 책봉을 의미하는 교명 · 죽책 · 옥인을 절차에 따라 대궐로 들여오는 행렬이 순서대로 그려져 있으며 목판으로 인쇄 제작한 분상용 의궤와는 다르게, 붓으로 그린 어람용 의궤를 모본으로 완성하여 왕실의 위엄을 보여준다.

'철종가례도감의궤 반차도'는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오대산 사고본 의궤로 1850년(철종 1)부터 행해진 철종과 철인왕후의 혼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24m에 이르는 반차도에서는 왕과 왕비의 결혼행렬을 묘사하고 있는데 현존 가례 행렬 중 가장 긴 행렬도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오랜 기간 의궤 반차도 재현 작업에 매진해온 황 작가가 염원을 담아 재해석한 창작작품이 소개된다. '천년의 기록유산'은 규장각 현판 아래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그린 작품으로 기록유산과 문화유산, 현대 기술이 집약된 기록매체들을 함께 그려 소중한 유산이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염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1년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의궤와 강화도에 보관되었던 외규장각 의궤가 일본과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의궤의 환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각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성과다. 10년이 지난 지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환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유산이 모셔졌던 오대산이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조선왕조의궤를 감상하고 선조들의 정신과 궁중기록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이다.

반차도는 조선 시대 국가 의례에 참여하는 문무백관 및 각종 기물 등의 정해진 위치와 행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이다. 국가 의례에 예모(禮貌)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 반차(班次)를 숙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 열을 지어 나아가는 행렬처럼 그린 행렬식 반차도와 의례 공간에서의 설위(設位) 반차를 글자로 표기한 배반도(排班圖) 형식이 있다. 또한 표현 방법에 따라 그림으로 그린 회화식 반차도와 글자로 표시한 문(文) 반차도가 있다. 반차도는 보통 의례 거행 시에 지침으로 활용된 후 후대의 참고를 위해 의궤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관청의 소장 업무와 관련한 배반도로 제작하여 소관 관청에서 소장하면서 평상시 업무 지침으로 삼기도 했다.

'의궤'는 의례 행사와 궤범(본보기가 되는 기준)을 합친 것으로 왕실이나 국가가 치른 중요 행사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2007년 조선왕조의궤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1-3호)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이라는 명분으로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후 한반도 식민통치와 수탈을 위해 일본이 세운 기관(조선총독부)이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궁내청)에 '기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후 1965년 한일 문화재 · 문화협정의 환수문화재 목록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환수 기회를 놓쳤고,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의 노력으로 81종 167책을 돌려받았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문화재)을 통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주권이나 청구권이 박탈된 정부를 대신해 월정사 등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조항(7장 ·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이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문화재를 지역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황치석 작가(서울여자대학교 초빙교수)는 20여 년간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를 고증하여 모사하는 작업을 해왔다.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의 궁중 화법을 전수받은 파인 송규태 화백의 지도를 받았다. 전통의 기법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선시대 기록화를 새롭게 모사하여 조선왕실 의례 전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033)339-7000

우리 모든 일상이 '만다라'

김인섭 '만다라, 색의 향연' 展
워킹 갤러리 8월 7일 ~ 21일


김인섭 作 '만다라 2020-A'.

새로운 시도의 만다라 전시가 열린다. 10여 년 동안 만다라를 연구하며 그려온 김인섭 작가가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남 창원시 워킹갤러리에서 자신의 5번째 개인전 '만다라, 색의 향연' 展을 연다.

그동안 사전적 의미의 만다라에만 집중해 왔던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만다라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된 새로운 만다라를 선보인다. 김 작가는 어느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다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불교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접근한 만다라와 존재 자체의 다양성을 '만다라'의 범주로 인식한 만다라는 같은 것이면서 또 다른 것이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로병사를 겪으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한 생이라는 각자의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만다라'라고 생각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만다라 2020-A'를 통해 작가 김인섭이 하루하루 또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일기를 쓰듯 작업한 작품을 '색의 향연'이라는 부제를 붙여 선보인다. 이렇듯 이번 전시는 다른 관점의 만다라를 만나볼 수 있다.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긴 일기의 한 쪽 한 쪽을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055)244-6578 박재완 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망 찾아 한국 온 몽골 소년에
부처님 가피 닿길

스님이 아이 이름 지어줄 정도로 불심 깊은 몽골출신 다와씨
아들 척추암이지만 수술 불가능해 한국행…혈액암도 발병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